

문예비평가(文藝批評家)의 태도(態度)에 대하여

문예비평이란 문예작품의 예술적 의의와 심미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상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인간정신의 노력입니다. 따라서 문예비평가는 작품의 예술적 의의와 탄 성질과의 혼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순수히 작품 그것에서 얻은 인상과 감동을 충실히 표출하여야 합니다. 즉 비평가는 언제나 실용적·정치적 관심을 버리고, 작품 그것으로 돌아가서 작가가 작품을 사상(思想)한 것과 똑같은 견지에서 사상하고 음미하여야 하며, 한 작품의 이해나 평가란 그 작품의 본질적 내용에 관련하여야만 진정한 이해나 평가가 된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감정을 여과하여 온 외계의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언제나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곳에는 이론도 정치적·실용적 관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술의 세계는 관조의 세계요,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념의 실현의 세계가 아니요, 실현된 이념을 반성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문예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평가(評家)는 매슈 아놀드가 말한 「몰이해적 관심(沒利害的關心)」으로 작품에 대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 작품에서 얻은 인상과 감동을 가장 충실히 표현하여야 합니

다. 비평가는 문법가도 역사가도 아닙니다. 그는 감동하고 표현하는 예술가입니다. 작품의 주석과 작자의 전기나 시대환경의 연구는 문법가나 문예사가의 임무요, 비평가의 임무는 아닙니다. 물론 비평가에게도 작품의 주석과 작자의 전기나 시대환경의 연구가 필요합니다마는 이것들의 연구는 작품의 개성과, 작품의 내면적 질서와, 작품의 특유한 생명을 이해하고 감득하는 데 도움은 될지언정, 비평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밀히 한 작품을 산출한 환경과 원인을 분석하여도 우리는 그 작품의 구조와 문체와 생명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작품의 구조와 문체와 생명은, 작자의 영감에 의하여 생명이 취입된 유기체입니다. 분석과 해부의 메스가 다를 때 유기체는 와해되며 생명은 도망합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정당히 평가하려면, 평가는 위대한 상상력과 감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작가와 「내면적 일치」에 들어가 같이 느끼고 사색하여야 합니다. 악의와 당파심과 이론화한 편견을 버리고 작품 그 속에 침잠하여야만 그 작품의 중심생명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개성과 같이 한 작품의 중심생명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작품을 연애할 때처럼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죄인 속에도 신(神)을 보고, 추에서도 미를 찾고, 목석(木石)에게도 생명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증오는 선인(善人)도 악인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것도 더러웁게 보는 마음입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은 처녀의 눈동자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증오가 차 있을 때 그 눈동자는 악의에 불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눈 속에 용솨음치는 감정의 천태만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포용을 의미합니다. 관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연인의 조그마한 단점은 잊어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사랑하는 진정한 평가는 한 작품의 조그마한 결점에는 눈을 감

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내적 영상을 확실히 파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조각이나 회화를 한층 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점을 지적함도, 저급한 독자를 계몽하기 위하여 또는 천재의 탈선을 막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품의 결점을 적발할 때는 평가는 목청을 낮추어야 합니다. 성난 빛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금강석 위에 티를 찾는 것도 유용한 일이나 모래알 속에서 금강석을 발견하는 것은 한층 더 유용한 일이라는 것을, 비난보다 찬미가 더 고귀한 심정에 속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미심은 결코 단순히 수동적이 아닙니다. 찬미하려면 먼저 보고, 느끼고, 사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 느끼고, 사상하는 것은 작용입니다. 따라서 비평은 작품에 의하여 부여된 정서와 인상을 암시된 방향에 따라 가장 유효하게 통일하고 통합하는 재구성적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비평가가 그의 주관에 철저하여 한 작품에서 얻은 인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찬미할 때에, 그의 인상과 찬미에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주관은 순수한 객관인 까닭입니다. 진정한 「나」를 보는 것은 진정한 「그」를 보는 것인 까닭입니다. 피테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인간에 관련 없는 어떠한 세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관련을 표현한 예술 이외의 어떠한 예술도 모릅니다. 그리고 코헨도 「예술의 객관성은 세련된 주관성으로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비평가는 강렬한 인상과 심각한 감동 없이 이미 경화(硬化)된 소위 객관적 기준(規準)을 천재의 정신의 작품에 적용하기를 삼가야 합니다. 피들러가 말한 바와 같이 이해는 언제나 예술가의 작품의 뒤를 쫓는 것이요, 결코 앞서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예술적 활동이 예술가에 대하여 장래 어떠한 과제를 제출할는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획득한 견해는 만일에 그것이 종극적 성질을 띠어서 경화하

여 규칙이나 요구가 될 때 그것은 이해의 진보를 속박합니다. 이와 같은 속박을 받을 비평가는 예술가의 창조적 정신의 도정의 뒤를 따르는데 필요한 공평무사와 생동성을 상실합니다.

저급한 비평가는, 예술가는 결국 자기가 벌써부터 알고 있는 규칙에 준거하여 창작에 종사하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는 비평가가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요, 법칙을 모르고 걸출한 작품을 산출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는 아마 그의 발견을 자랑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 법칙을 알기 전부터 바르게 회화를 그려왔다는 것을 자랑하리라.」 들라크루아의 이 부르짖음에 비평가는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적 능력의 현현(顯現)에 대하여 겸양을 배워야 하며, 예술가 속에 인간의 정신적 영토의 확대를 위하여 무제한으로 활동하는 힘을 존경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고야만 비평가는 미를 가장 잘 찬미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가장 잘 찬미할 줄을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1934. 4. 21~22)